

#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과 왕』에 나타난 언약신학<sup>1</sup>

권경철  
(충신대학교)

## [초록]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 1600-1661)는 누구 못지않게 언약신학을 정치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신학자이다. 그의 정치적 언약신학은 1644년에 출판된 『법과 왕』에 잘 나타난다. 이 책에 제시되는 언약신학은 불링거, 칼빈, 베자, 프랑스 개신교의 저항사상, 알투스우스, 그리고 스코틀랜드 언약신학의 전통에다가, 영국내전이라는 시대상황이 맞물리면서 형성되었다. 러더포드는 『법과 왕』에서 자연법을 인정하며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의 자연법 이해는 멜랑흐톤과 칼빈의 그것과 일치한다. 또한 러더포드는 베자 등이 제시한 프랑스 개신교의 저항사상을 수용하여 요긴하게 활용하였다. 국왕언약, 국가언약, 엄숙동맹으로 이어지는 스코틀랜드 언약신학의 발전도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찰스왕과 로드 주교의 고위 성직자 제도는

논문투고일 2019.01.31. / 심사완료일 2019.03.04. / 게재확정일 2019.03.07.

1 본 논문은 2017년 4월 22일 지구촌교회 수지채플에서 있었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69차 정기논문발표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그의 언약신학을 과격화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러더포드 언약신학의 근원을 불링거와 알투스우스에게서만 찾는 환원주의적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

**키워드:** 언약, 자연법, 폭정, 저항, 교회와 국가, 영국내전

## 1. 들어가는 말

언약신학은 기독교 신학, 그 중에서도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언약신학이란 구속역사를 설명하는 도구요, 교회와 성례의 근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담과, 그 다음에는 성도들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각각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며, 그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성례를 베푸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빼놓고서 개혁주의 신학을 설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 1600-1661) 역시도 그의 책 *The Covenant of Life Opened* (1655)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언약신학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17세기 언약신학자들처럼, 러더포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있었던 구속협약,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행위언약(혹은 자연언약),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체결하신 은혜언약이라는 세 종류의 언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동일하므로, 구약에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유아세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과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기독교 가정의 유아는 그 부모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으로

인해서 성별되어 “언약적 거룩함”을 가지게 되므로 유아세례를 한다는 것이다. 즉, 근원이 거룩하면 거기서 파생된 것도 거룩하다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롬 11:16-17) 성도의 자녀가 적어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아세례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약적 거룩함”의 원리는 “개인적인 거룩함보다는 후손, 사회, 가족, 혹은 국가의 거룩함”에 관계된다.<sup>2</sup> 그리고 이러한 외적이고 단체적인 언약 개념을 전제하면서, 러더포드는 국가교회와 국가언약의 정당성을 주장한다.<sup>3</sup> 러더포드가 이미 1644년에 『법과 왕』에서 언약사상의 정치적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을 생각한다면, 러더포드의 언약신학은 내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정치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언약의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러더포드만큼 비중있게 다룬 신학자도 드물다. 로버트 롤록(Robert Rollock, 1555-1599)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그리고 기록된 언약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지만, 언약의 정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침묵한다.<sup>4</sup>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의 경우에도, 그의 대표저서인 『신학의 정수』에서 언약신학의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sup>5</sup> 저명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인 기스베르투스 푸티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의 『교회정치』에서도 언약신학의 정치적 측면에 관

2 Samuel Rutherford, *The Covenant of Life Opened, or a Treatise of the Covenant of Grace* (Edinburgh, 1655), 83-84.

3 Rutherford, *A Survey of the Survey of that Summe of Church Discipline penned by Mr Thomas Hooker* (London, 1658), 474-80. 러더포드는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 1586-1647)의 회중교회주의를 반박하면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가언약이 신약시대에도 정당하게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더포드와 후커의 논쟁에 대해서는 Sang Hyuck Ahn, “Covenant in Conflict: The Controversy over the Church Covenant between Samuel Rutherford and Thomas Hooker” (PhD Diss. Calvin Theological Seminary, 2011)를 보라.

4 Robert Rollock, *Select Works of Robert Rollock*, ed. William M. Gunn (Edinburgh, 1849), 1:33-63.

5 John D. Eusden, “Introduction,” in William Ames, *The Marrow of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1997), 52.

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sup>6</sup> 심지어는 언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하네스 코케이우스(Johannes Cocceius, 1603-1669)조차도 언약신학의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sup>7</sup> 프랑수아 투레티니(Francois Turretini, 1623-1687, 영어권에는 Francis Turretin으로 알려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약신학의 정치적 유용성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sup>8</sup>

물론 러더포드가 언약신학을 정치에 적용한 것을 미증유의 혁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스(Raath)와 프레이타스(Freitas)가 주장하듯이,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언약신학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sup>9</sup> 맥코이(McCoy)와 베이커(Baker) 역시도 정치적 언약신학의 진원지로 불링거를 지목한다. 그들에 따르면, 불링거의 언약신학은 칼빈의 칼빈주의 전통과는 구별되는 형태의 개혁주의로서, 현대의 연방제도(confederation)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sup>10</sup> 또한 한 프랑스 개신교도가 가명으로 출판한 『폭정에 항거하여 자유를 변호함』이란 책은 왕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그 왕위가 굳게 선다는 정치적 언약론을 러더포드 이전에 이미 제안하였고,<sup>11</sup> 요하네스 알투스우스(Johannes Althusius, 1557?-1638)는 언약신학을 정치의 영역에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발전시켰다.<sup>12</sup> 러더포드와

6 Gisbertus Voetius, *Politicae Ecclesiasticae* (Utrecht, 1663).

7 Johannes Cocceius, *Summa doctrinae de foedere et testamento Dei explicata* (Leiden, 1654).

8 Francois Turretini, *Francisci Turretini Opera*, 4 vols. (Edinburgh, 1847-1848).

9 Andries Raath and Shaun de Freitas, "Theologico-Political Federalism: The Office of Magistracy and the Legacy of Heinrich Bullinger (1504-1575),"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3 (2001): 285-88.

10 Charles S. McCoy and J. Wayne Baker, *Fountainhead of Federalism: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al Trad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17, 24.

11 Stephano Iunio Bruto Celta, *Vindiciae contra tyrannos* (Edinburgh, 1579), 7-8. 이 책의 저자는 Philippe De Mornay(1549-1623)이거나 Hubert Languet(1518-1581)일 것이며, 표지에 쓰인 것과는 다르게 바젤(Basel)에서 출판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폭정에 항거하여 자유를 변호함』이라는 책과 알투스 시우스의 사상에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sup>13</sup>

러더포드가 불링거와 알투스시우스 뿐만 아니라 프랑스 개신교도의 저항사상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러더포드의 정치적 언약신학을 취리히 언약신학과 알투스시우스 사상의 산물이라고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하는 라스와 프레이타스의 견해를 일부 수정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화는 언약신학에 대한 불링거와 칼빈의 견해가 다르다는 맥코이와 배이커의 견해를 전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멀러(Muller), 비치(Beach), 릴백(Lillback)등의 학자들에 따르면 취리히 언약신학과 제네바의 언약신학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따라서 불링거와 칼빈의 언약신학이 매우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러더포드의 언약신학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려면, 불링거와 알투스시우스 뿐만 아니라, 프랑스 개신교의 저항사상, 그리고 칼빈과 베자로 대표되는 제네바 개혁신학의 영향을 추적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스코틀랜드 언약신학의 전통과 영국내전의 상황도 러더포드의 정치적 언약신학 형성에 기여했다고 하겠다. 본고는 『법과 왕』에 나타난 러더포드의 언약관을 분석함으로써, 러더포드가 취리히-라인란트(Zürich-Rheinland)계열의 언약신학 뿐만 아니라, 칼빈과 베자로 대표되는 제네바-프랑스 개혁신학 전통의 통찰들도 사용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스코틀랜드 언약신학의 전통과 영국내전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그의 정치적 언약신학을 풀어내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12 Johannes Althusius, *Politica, methodice digesta et exemplis sacris et profanis illustrata* (Herborn, 1603); Raath and Freitas, "Theologico-Political Federalism," 286.

13 러더포드는 알투스시우스와 이름과 함께, *Vindiciae contra tyrannos* (폭정에 항거하여 자유를 변호함)의 저자로서 유니우스 브루투스(Junius Brutus)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프랑스 개신교도를,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의 이름과 함께 언급한다. Rutherford, *Lex, Rex, or the Law and the Prince: A Dispute for the Just Prerogative of King and People* (Edinburgh, 1843), 209; John Coffey, *Politics, Religion and the British Revolutions: The Mind of Samuel Rutherfor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179-80.

한다.

## II. 스코틀랜드 언약신학의 발전사

언약(foedus)이라는 단어와 그 개념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본래 라틴어에서 foedus란 단어는, 약속의 증표로 짐승을 쳐죽인다는 의미가 강하며, 나라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는 의식을 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는 데에 쓰인 말이었다.<sup>14</sup> 이러한 세속적인 단어가 전문적인 신학용어로 거듭나게 된 데에는 라틴 별게이트의 역할이 있었다. 제롬(Jerome)은 언약(חֲבֵרָה, Διαθήκη)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구약에서는 foedus와 pactum, 신약에서는 testament라는 단어를 각각 사용했고, 그 후로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신학자들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주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언약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다.<sup>15</sup>

가브리엘 비일(Gabriel Biel, 1410-1495)의 신인협력설적인 언약신학은 본고의 목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제쳐두고 종교개혁자들에게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언약에 대해서 체계적인 서술을 한 사람은 불링거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책 『단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1534)에서, 그는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단일하고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재세례파의 주장을 논박하였다. 비록 이 책에서 불링

14 "Foedus autē Latinorum grammatici ex eo dictum putant quod in foedere feriendo porca foede hoc est crudeliter feriretur. Proprie vero foedus inter hostes sit dum a bello disceditur [...]." Heinrich Bullinger,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et aeterno* (Zürich, 1534), 4.

15 Brian J. Lee, *Johannes Cocceius and the Exegetical Roots of Federal Theology: Reformation Development in the Interpretation of Hebrews 7-10*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09), 14-24.

거가 언약과 정치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그의 언약신학이 정치적 언약사상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sup>16</sup> 불링거의 신학이 존 후퍼(John Hooper)와 같은 영국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sup>17</sup> 러더포드는 불링거의 언약신학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언약에 대해서 체계적인 저술을 한 적은 없지만, 존 낙스(John Knox, ?-1572)는 영국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다고 보고, 로마 가톨릭의 “우상숭배적인 예배와 예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8</sup> 낙스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듯이 영국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용납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9</sup> 언약을 위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각 기관의 머리되는 이들, 즉 집에서는 가장, 교회에서는 사역자, 국가에서는 통치자등에 의해서 언약이 위반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낙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sup>20</sup> 낙스 이전에도, 스코틀랜드에는 사회차원에서 개인이나 단체간의 언약 혹은 협약체계가 관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하고 정제시켜서 사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sup>21</sup> 러더포드가 고위 성직자 제도와 고교회적인 예전의 도입에 대해서 언약을 어기는 우상숭배라고 한 것은 낙스의 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낙스의 언약사상은 스코틀랜드 국왕언약(1581)으로 이어지게 된다. 스

16 Raath and Freitas, “Theologico-Political Federalism,” 286-88.

17 Carl R. Trueman, *Luther's Legacy: Salvation and English Reformers, 1525-1556* (Oxford: Clarendon Press, 1994), 23-24.

18 Breno Macedo, “From Social Bonds to Divine Covenant: The Rise and Development of the Covenant Idea in Scottish Theology from the Fourteenth to the Sixteenth Century,” *Puritan Reformed Journal* (2013), 115-16.

19 Macedo, “From Social Bonds to Divine Covenant,” 116.

20 Macedo, “From Social Bonds to Divine Covenant,” 119.

21 Macedo, “From Social Bonds to Divine Covenant,” 104-06, 121.

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자리를 잡으면서, 스코틀랜드 왕은 낙스가 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를 받아들이고, 개신교회를 보호하며,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그 세력이 스코틀랜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게 되었다.<sup>22</sup> 여기서도 우리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가적 언약체결이 문자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성경해석의 전제를 볼 수 있다.<sup>23</sup> 이 국왕언약은 후에 영국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가톨릭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었는데, 찰스왕은 성공회를 로마 가톨릭과 유사하게 바꾸고 있으면서 고교회적인 예전을 스코틀랜드에 강요하였다. 이에 반발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1581년의 국왕언약을 재확인하며 신앙적 순수성을 지킬것을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638년에 에딘버러에서 체결된 스코틀랜드 국가언약이다.

하지만 1585년에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와 그의 친구인 더들리 페너(Dudley Fenner, 1558-1587)가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Zacharius Ursinus, 1534-1583)의 통찰을 받아들여 영어권 최초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sup>24</sup> 1590년 어간에는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가 행위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sup>25</sup> 학문적인 언약신학의 발전은 주로 구속언약, 행위언약

22 Macedo, "From Social Bonds to Divine Covenant," 111.

23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영국이나 식민지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성경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예를 들어서, 다음 글들을 읽어보라. Macedo, "From Social Bonds to Divine Covenant," 111; James B. Torrance, "The Covenant Concept in Scottish Theology and Politics," in *The Covenant Connection: From Federal Theology to Modern Federalism*, eds. Daniel Judah Elazar and John Kincaid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0), 154-57; Theodore D. Bozeman, *To Live Ancient Lives: The Primitivist Dimension in Puritanism*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8), 98-99.

24 E. Brooks Holifield, *Theology in America: Christian Thought from the Age of the Puritans to the Civil War* (New Haven, CT: Yale Univeristy Press, 2003), 39.

25 Torrance, "The Covenant Concept in Scottish Theolog and Politics," 152.



(혹은 자연언약), 은혜언약이라는 구조속에서만 이루어졌고, 언약신학의 정치적인 함의는 생각보다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중에서도 로버트 브루스(Robert Bruce, 1554-1631), 안드레 멜빌(1545-1622), 로버트 호우이(Robert Howie, 1568-1646), 그리고 롤록 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언약보다는 구속역사속에서와 개인적인 언약의 적용에 대해서 훨씬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sup>26</sup>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안누스(Caspar Olevianus, 1536-1587), 그리고 코케이우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유럽대륙에서의 언약신학의 발전은 정치적인 면보다는 주로 구속역사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의 영향력은 영국에까지 미쳤던 것이 분명하다.

물론 언약신학의 발전을 구속언약, 행위언약, 은혜언약이라는 구조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언약이라는 단어와 사상이 성경과 역사속에서 오랫동안 쓰여왔던 만큼, 다수의 신학자들이 언약에 대해서 다양한 고찰을 했고, 이러한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적인 시도들이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트린테루드(Trinterud)의 정리이다. 헤페(Hepp)가 독일계열의 언약론적 개혁신학을 칼빈의 제네바에서 나타난 이중예정론의 신학과 구별한 것과 비슷하게,<sup>27</sup> 트린테루드는 올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와 불링거, 그리고 외콜람파디우스(Oecolampadius) 등으로 대표되는 취리히 전통의 언약신학과, 칼빈과 테오도르 드 베자(Theodore de Beza)로 대표되는 제네바의 신학전통을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취리히는 조건적이고 쌍무적인 언약신학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부각시킨 반면, 제네바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속에서의 구원이라는 언약론을 발전시켰다.<sup>28</sup> 맥코이와 베이커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리히의 언약신학과 제네바의 칼빈주의는 서로 구별되는 전통이라

26 Macedo, "From Social Bonds to Divine Covenant," 122-44.

27 J. Mark Beach, *Christ and the Covenant: Francis Turretin's Federal Theology as a Defense of the Doctrine of Grace*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07), 24.

28 Beach, *Christ and the Covenant*, 29.

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브스(Richard Greaves)는 이 두 전통이 영국에서 각각 다양한 형태로 차용되었으며, 존 프레스톤(John Preston, 1587-1628)과 존 볼(John Ball, 1585-1640)은 취리히의 노선을, 카트라이트와 페너와 퍼킨스는 두 전통의 융합을 추구했으나, 카트라이트와 페너와 퍼킨스 이후에 두 전통은 다시 분리되어 다시금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29</sup>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두 전통”이론은 사실이 아니다. 두 전통이론의 전제는 칼빈의 신학이 칼빈 뒤에 발전되는 언약신학과 상충된다는 것인데, 릴백(Lillback)에 따르면 이러한 반립은 존재하지 않는다.<sup>30</sup> 오히려 칼빈은 후대의 언약신학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 릴백의 주장이다.<sup>31</sup> 또한 멀러(Muller)와 비치(Beach) 역시도 쌍무적인 언약과 일방적인 언약의 개념은 예정론이나 율법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힌다. 즉, 제네바에서는 언약의 의무이행보다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가 강조되고, 라인란트에서는 언약의 의무이행이 은혜보다 더 강조되었다는 식의 서술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sup>32</sup>

그러므로 러더포드가 취리히 언약신학과 알투스우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빈과 베자의 신학, 그리고 그들의 신학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프랑스 개신교회의 저항사상이 러더포드에게 미친 영향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더하여, 스코틀랜드 신학의 전통과 영국내전의 특수한 상황이 더하여져서 『법과 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법과 왕』을 분석하면서 러더포드가 라인란트 방식의 언약신학 외에도 다양한 이들에게서 사상적 감화와 영향을 받아서

<sup>29</sup> Beach, *Christ and the Covenant*, 29-30.

<sup>30</sup> Peter A. Lillback, “Calvin’s 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of Salvation: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Covenant,” in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ssays and Analysis*, eds.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Phillipsburg, NJ: P&R, 2008), 170-80.

<sup>31</sup> 이에 대해서는 Lillback, 『칼빈의 언약사상』, 원종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을 참고하라.

<sup>32</sup> Beach, *Christ and the Covenant*, 45-46.

그의 정치적 언약신학을 정립했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 III. 『법과 왕』에 나타난 다양한 언약신학전통

러더포드가 『법과 왕』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로마 가톨릭에 동조한 죄목으로 수찬정지를 당한 맥스웰 주교(bishop John Maxwell, 1586-1647)는 절대왕권과 왕권신수설을 변호하면서 왕은 백성의 인정을 받든지 못받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왕이라고 하여 러더포드를 비롯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저항운동을 부정당한 것으로 비판했다.<sup>33</sup>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만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행해야 할 왕이 오히려 언약을 배반하며 장로교 신앙을 압제하고 폭압을 일삼고 있으니, 스코틀랜드가 그러한 무자격한 왕에 대항하고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잉글랜드의 신앙인들을 돕는 것이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이다.

러더포드는 『법과 왕』에서 시종일관 자신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에 속해 있으며 칼빈과 베자와 프랑스 개신교도 등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확실히 밝힌다. 먼저 서문에서 그는, 『스코틀랜드 왕의 권리』라는 책을 통해 장로주의에 굳게 서서 스코틀랜드 국왕언약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폭정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캐넌(Buchanan)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학자이며, 맥스웰 주교와 같은 망나니는 부캐넌 같은 인물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4</sup> 뒤이어 그는 로마서 13장이 국왕의 권위에

<sup>33</sup> Rutherford, *Lex, Rex*, 21.

<sup>34</sup> “Buchanan and Mr melvin were doctors of divinity; and could have taught such an ass as john Maxwell.” George Buchanan, *De Jure Regni apud Scotos: a Dialogue concerning the Rights of the Crown in Scotland*, trans. Robert Macfarlan (Edinburgh, 1843), xxii.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닉스의 『스코틀랜드 역사』를 인용한다.<sup>35</sup> 또한 그는 자신이 여느 종교개혁자들처럼 재세례파의 무정부론을 거부하면서도,<sup>36</sup> 동시에 폭정에 항거하는 저항사상을 견지한다는 점에 있어서 칼빈, 베자, 프랑스 개신교도들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본다. 실제로 러더포드의 로마서 13장 해석과 다윗 왕을 통해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던 시도 등이 베자 등과 유사하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sup>37</sup> 그렇다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행해진 일이나, 루터 시대의 신학자들은, 저항이 적법한 것”임을 보여주며, 이 점에 있어서 “칼빈, 베자, 파레우스, 독일 신학자들, 부캐넌”등은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러더포드의 주장은 다소 과장이 섞였을 수는 있어도 전혀 허언은 아닌 셈이다.<sup>38</sup>

한편 러더포드가 이처럼 자신을 칼빈, 베자 및 프랑스 개신교도들과 일치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은총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완성시킨다고 보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74)의 사상과 러더포드의 『법과 왕』이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코피(Coffey)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sup>39</sup> 결론부터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법과 왕』에 중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자연법 사상이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러더포드는 책 서두에서부터 정부가 자연법에 적합한 것인가, 적합하다면 자연법에 합당한 정부

35 Rutherford, *Lex, Rex*, 146.

36 “All our interpreters, as Beza, Calvin, Luther, Bucer, Marloratus, from the place[2 Peter ii] saith it is a special reproof of anabaptists and libertines, who in that time maintained that we are all free men in Christ, and that there should not be kings, masters, nor any magistrates.” Rutherford, *Lex, Rex*, 148.

37 Ryan McAnnally-Linz, “Resistance and Romans 13 in Samuel Rutherford’s *Lex, Rex*”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66, 2 (May 2013): 140-58; Nevada Levi DeLapp, *The Reformed David(s) and the Question of Resistance to Tyranny: Reading the Bibl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4), 145.

38 “...the practice of France, of Holland, the divines in Luther’s time...resolved resistance to be lawful; Calvin, Beza, Pareus, the German divines, Buchanan, and an host might be produced.” Rutherford, *Lex, Rex*, 184.

39 John Coffey, *Politics, Religion, and the British Revolutions*, 152-53.

형태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sup>40</sup> 그에 따르면, 통치기관을 세우는 것은 자연법에 충실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떤 사람을 통치자로 세울 것인가, 어떤 형태의 정치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등등은 자연법 혹은 절대적인 도덕법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이고,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선택사항에 불과하다.<sup>41</sup> 그 외에도 곳곳에서 러더포드는 자연법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가지고 교황주의자와 왕당파의 의견을 반박하곤 한다. 실례로, 러더포드는 자연법에 따라서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폭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sup>42</sup> 사람은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이 위정자에게 종속되는 것은 자연법 혹은 절대적인 도덕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positive law)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sup>43</sup> 또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자연법의 이치에 합당하며, 그러므로 스코틀랜드가 왕을 상대로 무력으로 저항하고 폭정에 고통받는 잉글랜드의 형제들을 돕는 것은 정당하다고도 하였다.<sup>44</sup>

그렇다면 러더포드는 이 점에 있어서 개신교 전통을 저버리고 계시와 이성을 부정당하게 조화시켰는가? 그렇지 않다. 아퀴나스식의 자연법 사상을 개신교도들, 특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거부해왔다는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 마우(Richard Mouw)의 주장과는 달리, 투레티니와 같은 저명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도 자연법 사상을 거부감없이 수용했다.<sup>45</sup> 무엇보다도, 멜랑흐톤(Melanchthon)이 율법폐기론자들을 반대하면서 그의 1528년 *Scholia*에 십계명이 자연법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폐지될 수 없는 도덕법이라고 쓴 것과,<sup>46</sup> 칼빈이 자유사상가들을 반대하면

<sup>40</sup> Rutherford, *Lex, Rex*, 1-6.

<sup>41</sup> Rutherford, *Lex, Rex*, 1-6, 23.

<sup>42</sup> Rutherford, *Lex, Rex*, 35.

<sup>43</sup> Rutherford, *Lex, Rex*, 51.

<sup>44</sup> Rutherford, *Lex, Rex*, 159-60, 187-89, 199.

<sup>45</sup> James E. Bruce, *Rights in the Law: The Importance of God's Free Choices in the Thought of Francis Turretin*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13), 16, 32.

<sup>46</sup> Timothy J. Wengert, *Law and Gospel: Philip Melanchthon's Debate with John*

서 인간에게는 “양심에 새긴 법”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sup>47</sup> 자연법 사상에 대한 일종의 긍정이라고 볼 수 있다.

러더포드의 자연법 사상은 멜랑흐톤과 칼빈의 그것과 분명히 일치한다. 러더포드가 왕의 권위는 “자연법의 최고한 절반, 즉 자비와 진리의 사역과 그의 형제와의 언약지킴”에서 인정받는다고 쓸 때,<sup>48</sup> 여기서 자연법의 최고한 절반이란 십계명의 후반부 혹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법은 도덕법과 이웃사랑의 법과 일치하며, 그것이 바로 형제와의 언약지킴이라는 러더포드의 정치 사회적 언약신학은, 언약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자연법을 근거로 도덕법과 십계명의 유효성을 주장했던 멜랑흐톤과 칼빈의 견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러더포드에게는 자연법이 언약신학의 틀 안에서 다루어졌을 뿐이다. 자연법 사상이 『법과 왕』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생각하면, 러더포드의 언약신학에는, 취리히 전통의 영향과 멜랑흐톤과 칼빈의 영향이 함께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볼링거, 멜랑흐톤, 칼빈 뿐만 아니라, 러더포드는 베자의 『신하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Du droit des magistrats*, 1574)과, 어떤 프랑스 개혁자가 가명으로 저술한 『폭정에 항거하여 자유를 변호함』을 접했음이 거의 틀림없다. 실제로 러더포드는 닉스와 부캐넌, 알투스우스 등과 함께 베자, 멜랑흐톤, 프랑스와 독일과 네덜란드 신학자들, 특히 유니우스 브루투스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저자의 저항사상이 자신의 견해를 지지해준다고 언급하고 있다.<sup>49</sup> 베자는 성바돌로매 축일에 일어난 학살로 인해서 일어난 종교전쟁에서 개신교의 저항전쟁을 변호하면서, 위정자들의 권세와 명령은 “경건과 자비”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복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Agricola of Eisleben over Poenitentia* (Grand Rapids, MI: Baker, 1997), 197.

47 John Calvin, “Against the Fantastic and Furious Sect of the Libertines Who Are Called ‘Spirituals,’” in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trans. Benjamin Wirt Farley (Grand Rapids, MI: Baker, 1982), 252-53.

48 Rutherford, *Lex, Rex*, 60.

49 Rutherford, *Lex, Rex*, 148, 152, 155, 173-74, 184, 209.

였다.<sup>50</sup> 왕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sup>51</sup> 왕이 하나님의 법과 자연법을 어기고 폭압정치를 하며 이에 대한 어떤 다른 타개책도 없는 경우에는, 하급관료들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서라도 폭군에게 저항할 수 있다.<sup>52</sup> 특히 왕이 신앙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므로, 저항할 수 있다.<sup>53</sup> 왕이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길 때, 삼부회는 왕을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은 “공평과 자연법”에 합당하다.<sup>54</sup> 러더포드는 베자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왕이 언약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폭정을 행하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되고 왕위는 폐해진다고 할 뿐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sup>55</sup>

한편 『폭정에 항거하여 자유를 변호함』의 저자는 성경에 나온 왕들의 예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왕은 어떠한가 하며 신앙적 이유의 불복종과 저항은 어떠한가 하는지를 제시한다. 많은 왕들이 절대권력이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임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고 있다.<sup>56</sup>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왕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sup>57</sup> 요아스 왕이 즉위할 때에 언약을 세운 것처럼, 왕은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것이다.<sup>58</sup> 따라서 왕들은 목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들을 선하게 인도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왕으로 임명되었다.<sup>59</sup>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명령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인물들이

50 Theodore Beza, 『신하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 박건택 역, 『종교개혁 사상선집』(서울: 솔로몬, 2009), 775.

51 Beza, 『신하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 780.

52 Beza, 『신하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 793.

53 Beza, 『신하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 818-22.

54 Beza, 『신하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 798.

55 Rutherford, *Lex, Rex*, 132, 166

56 Iunius Brutus, *Vindiciae contra tyrannos*, 2-3.

57 Iunius Brutus, *Vindiciae contra tyrannos*, 5-6.

58 Iunius Brutus, *Vindiciae contra tyrannos*, 7-8.12.

59 Iunius Brutus, *Vindiciae contra tyrannos*, 7-8.

그랬던 것처럼 불복종해야 한다.<sup>60</sup>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서 익명의 프랑스 개신교도는 구약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한 성경구절들을 저자 당시의 왕정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1</sup> 그리스도인 왕은 구약의 왕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언약, 같은 조건, 위반에 대한 같은 형벌”하에 있으며, “불신앙을 징벌하시는 동일하신 전능의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다.<sup>62</sup> 러더포드도 자신의 책에서 구약의 왕에 대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윗이 즉위할 때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성경구절은 왕은 백성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명령을 도출하는 데에 사용된다.<sup>63</sup> 그리고 왕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과 언약관계에 있으므로 백성들을 신앙과 의로움으로 다스리며 보호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왕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64</sup> 왕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조건은 곧 백성을 선하게 다스려야 것이라는 점에서 러더포드는 프랑스 저자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왕은 절대권력을 휘둘러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조건하에서 왕으로 인정받는 것이다.<sup>65</sup>

하나님과 왕과 백성이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알투스우스에게서도 반복된다. 통치자들과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야 하며, 학교들로 하여금 경건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도록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보전할 책임이 있다.<sup>66</sup> 러더포드는 알투스우스의 통찰을 기꺼이 차용했다. 왕은 경건이 보존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sup>67</sup> 왕이 이상숭배적인 예전과 예배를 강요하면, 그 왕은

60 Iunius Brutus, *Vindiciae contra tyrannos*, 26.

61 Torrance, “The Covenant Concept in Scottish Theology and Politics,” 154.

62 “Euangelium successit legi, Reges Christiani Iudaicorum loco sunt. Idem pactum est, eadem conditiones, eadem poenae, ni impleantur, idem index perfidae Deus omnipotens.” Iunio Bruto, *Vindiciae contra tyrannos*, 18.

63 Rutherford, *Lex, Rex*, 54.

64 Rutherford, *Lex, Rex*, 57.

65 Rutherford, *Lex, Rex*, 60.

66 Althusii, *Politica, methodice digesta*, 301-03.

67 Rutherford, *Lex, Rex*, 55.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저항해야 한다.<sup>68</sup> 물론 러더포드는 위정자가 자기 백성들의 경건상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투스우스에게만 배워오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서 칼빈은 우상숭배와 신성모독 등의 죄가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의 의무라고 기록하고 있고,<sup>69</sup>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소위 Belgic Confession) 36번째 조항에도 같은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sup>70</sup> 이렇게 볼 때, 알투스우스는 개혁자들이 이해한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언약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 러더포드가 그것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언약신학의 발전과 영국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러더포드의 언약신학에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낙스, 국왕언약, 1638년 스코틀랜드 국가언약, 그리고 1642년 잉글랜드와의 엄숙동맹에 이르기까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교회와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언약을 강조해왔다. 잉글랜드의 경우에도, 영국 국교회는 교황이 아닌,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밀접하게 관이 련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언약개념이 자라나기가 한층 용이했을 것이다. 게다가 마리아 튜더 여왕의 가혹한 박해와, 가톨릭 추종자들에 의한 제임스 왕 암살기도사건(The Gunpowder Plot)은 영국민들에게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 또한 17세기 개신교도들에게는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며 로마 교회는 미사라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폭압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이 상식적인 것이었으므로,<sup>71</sup> 러더포드는 찰스왕과 로드 대주교(Archbishop Laud)

68 Rutherford, *Lex, Rex*, 56.

69 Calvin, *Institutes*, 4.20.3.

70 “거룩한 사역을 보호하며, 그림으로써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 예배를 막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멸망받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흥왕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있다.

71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을 적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관례와도 같아서 이 신념이 개신교도들의 연합에 도움이 되어왔는데, 찰스왕과 로드 대주교는 이러한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Anthony Milton, *Catholic and Reformed: The Roman and Protestant Churches in English Protestant Thought, 1600-164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를 보라.

이 악명높은 “그 밖에 모든 것” 칙령을 통하여 고위 성직자 제도를 강요하는 것에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노와 실망감은 전쟁을 통하여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법과 왕』이라는 절대왕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서를 남고야 말았다.

#### IV. 나가는 말

러더포드의 『법과 왕』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전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러더포드는 종교개혁자들의 자연법 사상, 국가관, 문자적 구약 해석학, 저항사상, 그리고 그들의 로마 가톨릭 비판을 언약신학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고 가공하여 영국내전이라는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과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러더포드의 정치적 언약신학을 단순히 라인란트 계열의 언약신학이나, 알투스우스의 언약신학의 한 갈래로 보는 환원주의적 사고를 지양하고, 불링거, 칼빈, 베자, 프랑스 개신교 저항사상, 스코틀랜드 언약신학, 그리고 러더포드의 시대상황과 배경이 모두 반영되어 형성된 종합서로 볼 것을 제안한다. 러더포드가 전통을 활용하여 그 시대에 필요한 국가언약관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성경적이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Covenant Theology  
in Samuel Rutherford's *Lex, Rex*

Gyeong Cheol Gwon(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amuel Rutherford(1660-1661) was a theologian who applied covenant theology to the area of politics more actively than many others. The political aspect of his covenant theology was evident in *Lex, Rex*, which was published in 1644. The covenant theology presented in the book was shaped by various factors: Bullinger, Calvin, the resistance theory of Beza and the Huguenots, Althusius, the Scottish covenant theology, and the English Civil War. Rutherford's concept of the law of nature, which was used as a piece of evidence in support of his thesis, was in line with Melanchthon's and Calvin's understanding. Moreover, Rutherford accepted the resistance theory of Beza and the French Protestants and made use of it. A series of covenants signed by the Scots, including the King's Covenant,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and 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 also influenced him greatly. Finally, his covenant theology was radicalized when King Charles and Archbishop Laud tried to imposed the prelacy on Scotland. Seen in this light, we need to beware of the reductionist tendency that finds the source of Rutherford's covenant theology solely from Bullinger and Althusius.

**Key Words:** Covenant, Law of Nature, Tyranny, Resistance, Church and State, English Civil War

## [참고문헌]

- Altusius, Johannes. *Politica, methodice digesta et exemplis sacris et profanis illustrata*, Herborn, 1603.
- Beach, J. Mark. *Christ and the Covenant: Francis Turretin's Federal Theology as a Defense of the Doctrine of Grace*.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07.
- Beza, Theodore. 『신하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 박건택 역. 『종교개혁 사상 선집』. 서울: 솔로몬, 2009.
- Bozeman, Theodore D. *To Live Ancient Lives: The Primitivist Dimension in Puritanism*.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8.
- Bruce, James E. *Rights in the Law: The Importance of God's Free Choices in the Thought of Francis Turretin*.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13.
- Bruto Celta, Stephano Iunio. *Vindiciae contra tyrannos*. Edinburgh, 1579.
- Buchanan, George. *De Jure Regni apud Scotos; a Dialogue concerning the Rights of the Crown in Scotland*. Translated by Robert Macfarlan. Edinburgh, 1843.
- Bullinger, Heinrich.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et aeterno*. Zürich, 1534.
- Calvin, John. "Against the Fantastic and Furious Sect of the Libertines Who Are Called 'Spirituals.'" In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Trans. Benjamin Wirt Farley. Grand Rapids, MI: Baker, 1982.
- \_\_\_\_\_.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2 Vols.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 Eerdmans, 1972.

Cocceius, Johannes. *Summa doctrinae de foedere et testamento Dei explicata*. Leiden, 1654.

Coffey, John. *Politics, Religion and the British Revolutions: The Mind of Samuel Rutherfor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DeLapp, Nevada Levi. *The Reformed David(s) and the Questions of Resitance to Tyranny: Reading the Bibl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4.

Eusden, John D. "Introduction." In William Ames. *The Marrow of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1997.

Holifield, E. Brooks. *Theology in America: Christian Thought from the Age of the Puritans to the Civil Wa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3.

Lee, Brian J. *Johannes Cocceius and the Exegetical Roots of Federal Theology: Reformation Development in the Interpretation of Hebrews 7-10*.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09.

Lillback, Peter A. "Calvin's 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of Salvation: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Covenant." In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ssays and Analysis*. Ed.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Philipsburg, NJ: P&R, 2008.

\_\_\_\_\_. 『칼빈의 언약사상』. 원종천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9.

Macedo, Breno. "From Social Bonds to Divine Covenant: The Rise and Development of the Covenant Idea in Scottish Theology from the Fourteenth to the Sixteenth Century." *Puritan Reformed Journal* 5, 1 (2013): 102-144.

McAnnally-Linz, Ryan. "Resistance and Romans 13 in Samuel Rutherford's *Lex, Rex*."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66, 2 (May 2013): 140-158.

- McCoy, Charles S. and J. Wayne Baker, *Fountainhead of Federalism: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al Trad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 Milton, Anthony. *Catholic and Reformed: The Roman and Protestant Churches in English Protestant Thought, 1600-164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Raath, Andries and Shaun de Freitas. "Theologico-Political Federalism: The Office of Magistracy and the Legacy of Heinrich Bullinger (1504-1575)."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3 (2001): 285-304.
- Rollock, Robert. *Select Works of Robert Rollock*. 2 Vols. Ed. William M. Gunn. Edinburgh, 1849.
- Rutherford, Samuel. *Lex, Rex, or the Law and the Prince: A Dispute for the Just Prerogative of King and People*. Edinburgh, 1843.
- \_\_\_\_\_. *The Covenant of Life Opened, or a Treatise of the Covenant of Grace*. Edinburgh, 1655.
- \_\_\_\_\_. *A Survey of the Survey of That Summe of Church Discipline Penned by Mr. Thomas Hooker*. London, 1658.
- Ahn, Sang Hyuck. "Covenant in Conflict: The Controversy over the Church Covenant between Samuel Rutherford and Thomas Hooker." PhD Diss. Calvin Theological Seminary, 2011.
- Torrance, James B. "The Covenant Concept in Scottish Theology and Politics." In *The Covenant Connection: From Federal Theology to Modern Federalism*. Ed. Daniel Judah Elazar and John Kincaid.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0.
- Trueman, Carl R. *Luther's Legacy: Salvation and English Reformers, 1525-1556*.
- Turretini, Francois. *Francisci Turretini Opera*. 4 Vols. Edinburgh, 1847-1848.

Voetius, Gisbertus. *Politicae Ecclesiasticae*. Utrecht, 1633.

Wengert, Timothy J. *Law and Gospel: Philip Melancthon's Debate with John Agricola of Eisleben over Poenitentia*. Grand Rapids, MI: Baker, 1997.